

예전에 작가의 작품을 앞에 놓아두고 앉아 꽤 오랜시간 동안 명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무엇에 이끌렸는지 뜬금없이 작가에게 명상을 위해 작품을 빌려달라 요청했었고, 그 뜻밖에 요청에도 작가는 자신의 그림들을 선뜻 내어주었다.

그의 작품에는 경계를 쉽게 잡아 질 수 없는 상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있다. 작품들과 마주 앉아 명상을 시작하면 그림들은 곧 몇 가지 화두들을 던져온다; 아니면 도리어 내가 그림들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 물음들은**

산과 바다의 경계는 어디인가?
달과 태양의 경계는 어디인가?
물과 우주의 경계는 어디인가?
삶과 죽음의 경계는 어디인가?
나와 그림들의 경계는 어디인가?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까지가 ‘그림’인가?

명상의 과정은 작품들과 나 사이의 간격에서 오고 가는 화두 속에 앉아 있는 시간만으로 그저 즐거웠지만, 밀려오는 작품들의 화두에 스스로 통쾌한 답을 내리진 못하였다.

나는 작가의 내면과 삶 안에서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도 나선형 원형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해한다. 그 응축된 상징이 나선형 원형이고 그것이 자연으로 현현된 것이 바로 소라껍질이다.

그의 작품들이 나에게 던지는 내적 경험들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 한다. 먼저, 소라껍질 안쪽면 끝에 의식의 점을 찍어 나선형 길을 따라 출발해보자. 나선의 안쪽을 쪽 따라 위로 올라가면서 그 폭은 점차 좁아지고, 결국 나선이 한 점으로 모이는 극점에 다다르게 된다. 소라껍질 내부의 극점은, 곧 소라껍질의 바깥면(바다쪽) 극점이기도 하다. 이제 소라껍질 바깥쪽대기 극점에 올라서서 다시 껍질의 나선을 타고 천천히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처음 출발했던 소라껍질 안쪽면의 출발점과 다시 만나게 된다. 이 움직임을 무한히 반복하며 소라껍질의 나선적 흐름 속으로 우리의 의식을 놓아보자. 더 이상 의식은 소라껍질 내부의 나선을 타고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다시 바깥 바다의 경계로 환류하고 있는 것인지를 잊게 된다.

이 무한한 무경계의 나선운동을 거친 소라껍질(경계)은 더 이상 소라(개체)와 바다(전체)를 둘로 나누는 경계가 아니라, 소라와 바다, 내부와 외부(혹은 생과 죽음을)를 한 덩어리로 휘감아 뭉치는 무분별적 나선의 경계이다. 이 새로운 나선 껍질(경계)은 소라(개체)와 바다(전체)를 동시에 함께 생성하는 인연생기(因緣生起)*의 전체임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다면 과연 우리의 자아(경계)는 나(개체)와 세계(전체)를 분리 시켜놓는 껍질(Shell)일까? 아니면 나(개체)와 세계(전체)를 동시에 창조하는 나선형 안식 터(Shelter)일까?

저 깊은 바다 속에는 더 깊은 심해 속으로 바다를 한없이 내려보내는 해저 폭포가 있다고 한다. 폭포(경계)는 강한 흐름의 형상이 존재하지만 그것도 역시 바다(전체)이며, 그 끝에 도달하는 심해도 역시 바다(전체)이다. 바다에서 출발하여 다시 바다 전체, 하나의 물방울이 되어가는 느낌이 바로 이번 작가의 전시[너머:At the Edge of Realms]에 대한 나의 인상이다.

끝으로, 글을 쓰면서 아까 작품과 명상 사이에서 던져졌던 미결된 화두들의 응답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나만의 답은**
“샘물처럼 전체가 솟아나는 경계”

* 모든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상호 의존적으로 생겨난다는 불교의 개념